

현대車, 어린이 안전 위해 '통학차량' 기증

안전기술 적용된 스타렉스 14대 기증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통학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현대차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안전기술이 적용된 스타렉스 통학차량 14대를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에 선정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은 현대차의 CSV 5대 분야인 친환경, 이동혁신, 교통안전, 미래세대성장, 지역사회상생 중 교통안전과 미래세대 성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기술협력 파트너사와 함께 안전기능이 장착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난 2년 동안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4200km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원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기증하는 차량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슬리핑차일드체크'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학차량

의 도착시간과 승차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어린이 하차 후 운전자가 NFC 태그를 통해 차량 내외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해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신한금융 신한DS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DS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DS VIETNAM AM(이하 신한DS VN)'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DS 유동욱 사장(오른쪽 첫번째), 신한DS 베트남 이광식 법인장(오른쪽 다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DS VN은 신한DS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신한금융그룹 현지 그룹사 대상 글로벌 ICT 서비스 제공 ▲베트남 금융 ICT 시장 진출 ▲신(新) 디지털 금융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현지법인 설립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디지털 원신한(One Shinhan)'의 3박자가 결합된 작품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

포스코

청년 위한 '쉐어하우스' 건립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쉐어하우스'의 건립을 지원했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입주식을 가진 청년쉐어하우스는 지상 5층 연면적 11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35세의 무주택 1인 미혼가구 청년 18명이 입주한다. 입주 청년들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450만원에서 1060만원, 월 임대료 7만8000원에서 18만6000원을 내고 거주하게 되며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거실·부엌·화장실 등은 공유한다.

이번 청년쉐어하우스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건축비를 출연하고 서대문구가 부지를 제공했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이슈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주택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민간·공공·시민사회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드론으로 농작물 야간 방제 '성공'

LG유플러스는 팜한농과 U+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야간에도 정밀하게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드론 야간 방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저녁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센터 연구농장에서 U+드론 관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도 3m에서, 3m/s의 이동속도로 1시간 동안 '드론 정밀방제 시연'을 위한 야간비행을 실시했

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야간 특별비행을 허가 받았다.

이날 LG유플러스는 U+ 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야간, 정밀 자동 방제 ▲기체 2대를 이용해 작업지역을 자동으로 방제하는 패턴 방제 ▲나선 비행으로 배나무에 작물보호제를 살



LG유플러스 직원이 야간 드론 정밀방제를 위한 U+드론 관제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포하는 핀포인트 방제 등 드론 정밀방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9월 20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p> 쥐 4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아. 60년생 마음이 즐거우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온다. 72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84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p>	<p> 말 54년생 옛 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친구는 내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잘 챙겨라. 78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90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p>
<p> 소 4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6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날이다. 7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85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리게 되니 마음을 편히 갖자.</p>	<p> 양 55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67년생 순환기계의 질환이 걱정되니 의심되면 병원으로. 7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작은 것이라도 몸에 지니라. 9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p>
<p> 호랑이 50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62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과 비옷이 필수. 74년생 하루가 오늘만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86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p>	<p> 원숭이 56년생 이랬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하다. 68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0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겁진다. 92년생 마음은 상해도 상사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구나.</p>
<p> 토끼 51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63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5년생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 초대된 손님이 아니다. 87년생 행운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해라.</p>	<p> 닭 57년생 모심으려 갈 때는 정화를 신어아 한다. 69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8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93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p>
<p> 돼지 52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6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6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8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p>	<p> 개 58년생 비단옷을 입고 방거리를 걸어봐도 누가 봐 주질 않는다. 70년생 선배와 의견이 맞지 않으니 선택을 분명히 해라. 82년생 무엇을 해도 기본 좋은 날. 9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p>
<p> 뱀 5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아라. 65년생 가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도 아프다. 77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나. 89년생 유래, 상례, 통쾌한 하루.</p>	<p> 돼지 59년생 친구는 자주 봐야 친구다. 7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온통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겠다. 83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이나 내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95년생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자.</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7						3
	8	1	5		4			9
8	9		6					4
	3						2	
1				7		9	6	
3		9			4	7	6	
4				5				
		8	9					

	2							
7				8		5		6
				4		3		8
				1			7	
	1	9	8			4		
					3	1		2
	5	8		6	9			
				5				
	7	6			4			1

스도쿠 정답

5	7	8	9	6	8	2	1	4
2	1	6	5	2	4	8	9	7
8	9	2	7	2	1	6	5	8
9	6	8	2	4	7	5	2	1
2	5	1	8	6	7	4	9	3
7	4	1	2	5	9	2	6	8
6	2	7	4	9	5	1	8	2
4	8	2	6	1	2	9	7	5
1	5	9	8	7	2	4	6	3
5	1	8	7	4	9	2	6	3
7	9	6	8	2	5	1	4	7
2	4	2	6	9	1	8	5	7
2	8	1	4	6	9	2	7	5
4	5	7	2	8	6	1	9	3
6	2	9	5	1	7	2	8	4
8	6	4	2	7	2	5	9	1
9	2	5	1	8	4	7	6	3
1	7	2	9	5	6	4	2	8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명당터에 대한 동경

필자의 오랜 신도중의 한 분이 지난 백중재를 잘 회향하고 나서 따로 질문을 했다. 내용인즉, "원장님, 저희 시택은 원래 선산이 있던 것을 시아버님의 위 형제들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시아버님은 막내아들이었기에 발언권도 없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따로 묘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해서 뿌려 달라고 유언을 해서 일정 기간 납골당에 모시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어머님이 수목장(樹木葬) 얘기를 하시네요. 수목장을 할 때도 흙이 좋은 터를 잘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질문의 요지는 비록 봉분을 쓰는 뒷자리가 아닐지라도 어차피 화장한 유해를 수목장하는 것이니 묘터의 좋고 나쁨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나중 문제를 생각하면 한번은 고민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적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본인의 뒷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원묘지나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수목장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듣자하니 공원묘지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으며 일반 서민들 역시 납골당 사용에 있어 고려해봐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죽어서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죽어서조차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갖는 것이 형편에 따라 다르니 세속의 삶은 망자에게도 꼬리표가 따라 붙는 듯하다. 봉분을 쓰는 묘터나 수목장 역시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 밑에 수맥이 흐르거나 하면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명당터를 볼 줄 아는 안목은 갖추기가 쉽지 않다. 사바세계는 지구의 역학이 존재하는지라 단박에 바람이 세면 바람을 피하려 벽을 세우게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처마 밑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기에 일정 기간 동안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모두가 마음이 편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적인 도가의 사상에서는 음택풍수적인 차원에서 외형적인 지리와 위치에 대하여 좋고 나쁨이 존재한다. 실제로 물리적인 이유에서도 사실이 그러한 경우가 늘 있다. 그러나 원용한 우주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스쳐지나가는 바람 속의 먼지 한 톨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 시간의 장단이 있을 뿐 언젠가는 지수화풍으로 우리의 흔백은 흩어져 섞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